

지역문화정책 이슈페이퍼
NAFAC Issue Paper _ Culture & Local

Vol 2024-2 (2024.04.29 발간)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연구결과 다이제스트 _ 2/2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해결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 김해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sea@sfac.or.kr)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2024.2월에 발간한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총 2차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지난 3월 발간한 이슈페이퍼 1호에서는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개념과 대응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0개 영역별로 소개한 지역문화재단들의 사업사례들 중에서 5개 사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 세가지 유형

2. 사례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 청소년부터 환경문제까지, 예술교육에서 영향평가연구까지

사례 1.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충북문화재단)

사례 2. 의정부 기지촌 '빼뻘마을' 재생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사례 3. 부울경 비치코밍(Beach Combing) (부산문화재단)

사례 4.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프로젝트 (전남문화재단)

사례 5. 학교 밖 청소년 관계회복 예술교육과 그 성과 측정연구 (충남문화관광재단)

3.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 필요성과 과제

(가제)“지역문화정책 이슈페이퍼”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에 연재됩니다.

[바로가기](http://nafac.or.kr/) <http://nafac.or.kr/>

문의 : 한광연 사무처

지역문화정책 이슈페이퍼
NAFAC Issue Paper _ Culture & Local

Vol 2024-2 (2024.04.29 발간)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해결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 세가지 유형

-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해결의 개념과 정책적 동향,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실태들을 종합하여, 문화정책 주체들이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음.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보고서에 소개된 지역문화재단 사업 사례들 (사업영역 및 해결방법별 사례 포함)
세 가지 유형	세부 과제	
①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복지 향상 -문화서비스의 역진성 해소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 -문화다양성 사회 대응, 등 <문제해결 접근법> -영향 및 변화 평가 연구로 사회적 문제 관찰하기	<문화다양성> -의정부 기지촌 ‘빼빨마을’ 재생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등 2건 <문화접근성> -청년예술 콘서트 서비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3건 <영향 및 변화 평가>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1건
②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 치유 -육체건강 및 치료효과 증진 -청소년 및 가족 문제 치유 -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 -소수자 인식개선 및 혐오 해소 -지역재생 및 활력 제고 -지방소멸 대응 -창의력 증진 -국제평화 및 교류증진 -범죄예방 -공동체 회복, 등	 <청소년 문제>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충북문화재단) 등 2건 <환경문제> -비치코밍(Beach Combing) (부산문화재단) 등 2건 <지역활력>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1건
③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개선(인구구조 고령화) 등 <문제해결 접근법>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지원, 기업제휴 등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서비스 혁신 및 확산 -기관 경영기조 전환을 통한 혁신 -정책연구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문화기획 지원	 <예술가 활동지원>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프로젝트 (전남문화재단) 등 3건 <제휴를 통한 확산> -장애예술인 지원 <로레알코리아-친환경 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등 5건 <정책연구>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 (부산문화재단) 등 2건

2. 사례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 청소년부터 환경문제까지, 예술교육에서 영향평가연구까지

- 한광연 회원 광역문화재단 소속 공동연구진들이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①다양한 문제들**>과 <**②다양한 접근법**> 나누어 소개했음.
- <**①다양한 문제들**>에서는 <(1)청소년 문제, (2)문화다양성, (3)환경문제, (4)지역활력, (5)문화접근성> 관련 사례들이, <**②다양한 접근법**>에서는 <(1)예술가 활동지원, (2)제휴를 통한 확산, (3)정책연구, (4)영향 및 변화평가, (5)기관 경영기조 전환> 사례가 소개되었음.
- 이번 호에서느는 총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된 13개 재단의 23개 사업 사례들 중에서 5개 사례를 요약하여 소개함. 해당 사업들이 해결하고자 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접근법, 그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기관명	프로젝트 사례들	해결하고자 한 사회적 문제	문제해결 지향점	사례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충북 문화재단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법정까지 와야만 했던 청소년들과 가정의 정서적 치유	청소년과 문화 이어주기 노력을 이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주제를 다루는 상황에서도 공감을 이끄는 적절한 문화기획이 중요함 ▷ 예산 삭감과 담당자 교체에도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경기 문화재단	의정부 기지촌 '빼に戸마을' 재생 프로젝트	기지촌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진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자원으로 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준비와 자기성찰적 태도로 문화다양성의 현장을 대해야 함 ▷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수혜자로 고려하는 단계에서 동등한 문화주체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부산 문화재단	부울경 비치코밍(Beach Combing)	해양문화도시의 바다 쓰레기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 기술로서 예술"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구현 문화예술프로젝트로 지역 간 연대협력도 가능함 ▷ 지역문화재단들의 연대로 기후위기 대응행동 확산이 필요함
전남 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프로젝트	지역 예술가들을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 주체로 만들기	로컬의 창의력으로 다양한 로컬의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가 지원에 적합하도록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함
충남 문화관광 재단	학교 밖 청소년 관계회복 예술교육과 그 성과 측정연구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긴 호흡으로 변화 관찰하고 계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가치발현 증거는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한 문제 : 법정까지 와야만 했던 청소년들과 가정의 정서적 치유

- 반성없는 처벌의 역효과 개선

: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들이 경미한 비행에 대한 처벌을 계기로 더욱 일탈이 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처벌보다는 적절히 기획된 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고 반성과 가정의 공감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음.

- 해체된 가족의 해제된 정서 치유

: 가사재판과정에서 지친 부모와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하고자 했음.

○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청소년과 문화 이어주기 노력을 이어가기

-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체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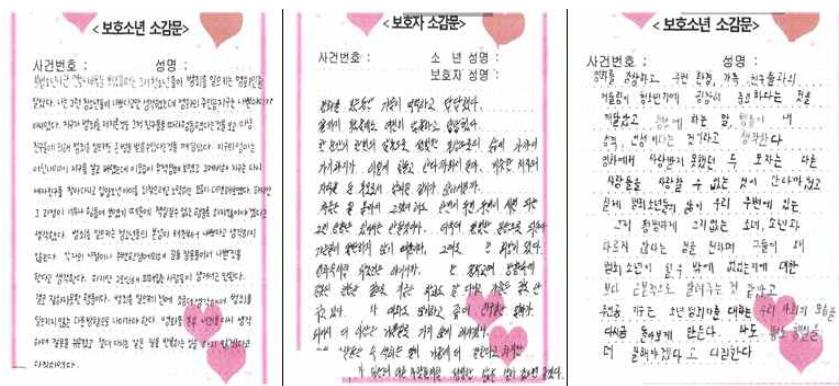
: 청주지방법원과 충북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소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독립영화'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시행했음. 소년재판부에 소감문을 제출한 20가족 전원이 불처분 결정하여 '반성 없는 처벌' 대신 '처벌없는 반성'을 이끌어 냈음

-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가사재판가정 23개 가정 등 총 41명이 참여하여 1박2일 문화예술체험 및 치유 캠프를 진행했음. 그 성과를 인정 받아 2년 연속 기관협력사업으로 확대했음.

○ 교훈과 시사점 : 공감을 이끄는 문화기획, 예산 삭감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하기가 중요

- 지역문화재단들은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문화행사 단체관람 지원,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 문화 사이의 벌어지는 간극을 메우고 이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충북문화재단의 사례에서는 법원이라는 매우 낯선 파트너, 법적 처벌이라는 무거운 분위기의 사업 환경에서도 적절히 기획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공감과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함
- 대전문화재단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예산축소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온 사례처럼, 다른 정책영역과 협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청소년 문화사업은 예산삭감과 담당자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함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보호소년·보호자 소감문> (출처:충북문화재단)

○ 해결하고자 한 문제 : 기지촌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 쇠락한 미군부대 인근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문화적으로 포용하기
 - : 2000년대 미군기지 감축조치로 마을이 쇠락하고 침체된 지역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되거나 경제적으로 추방되어 떠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지역에 남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여,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서사를 불러내고자 하였음

○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진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자원으로 포용하기

- 2019년부터 김현주&조광희 작가그룹의 지역리서치로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시행 (~2023년)
 - . 마을주민 참여, 지역문화재단 협력으로 '지역리서치 → 문화공간 조성·운영 → 문화도시 사업 거점화' 단계로 발전하
 - . 커뮤니티 문화공간 '빼빨보관소'와 '송산반점' 운영
 - . 워크숍/퍼포먼스 40회, 라운드테이블/포럼 4회, 전시 10회, 공연 및 축제 10회 개최
- 지역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며 사회적 포용 실천
 - . 총 참여자 약 1,000명 (2019~2023년)

○ 교훈과 시사점 :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서만 고려하기 보다 동등한 문화주체로서 협력하는 인식전환 필요

- 문화다양성 정책이 차별금지 교육, 창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 수혜자로 전제하는 1단계에 머물러 있음.
- 한결음 더 나아가 모두가 동등하고 다양한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는 작동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인식개선, 조직, 기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현장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교육과 자기성찰을 거친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행사)방문객의 세심하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됨



<빼빨 주민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호하고 충분하게 짜장면을 먹어보자'> (출처: 달로 김현주)

○ 해결하고자 한 문제 : 해양문화도시의 바다 쓰레기

-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 부산의 해양쓰레기 문제

: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다양한 활동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음



○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 기술로서 예술’ 활용하기

-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한 환경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개 이상 단체의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아트,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지원.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모형 만들기 등 예술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줌.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 (2022.5~10월)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민과 예술가(단체)가 참여한 “비치코밍 투게더 아트展” 개최

- . 총 493명의 시민이 비치코밍 참가
- . 9,080명의 시민이 전시 관람

○ 교훈과 시사점 : 사회적 가치 구현 문화예술프로젝트가 지역 간 연대협력도 매개

- 바다의 환경 쓰레기 오염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부산 엑스포 유치’, ‘부울경 협력’이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봄업 활동과 연계할 수 있었음.
-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일원에서 실시한 비치코밍·플로깅은 지역의 역사문화해설과 함께 진행되어 지역문화와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음
- 예술적 기획과 지역문화재단들의 기관 차원의 실천, 그리고 단체 간 연대로 기후위기 대응행동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함.

○ 해결하고자 한 문제 : 지역 예술가들을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 주체로 만들기

- 예술과 사회의 접점 확대와 이를 통한 예술가들의 활동영역 확대 추구
- 현지 지역성에 기반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역량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도출 기대

○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로컬의 창의력으로 로컬의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생태위기, 지역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였음
- "전남 청년들의 문화적 실험을 지지합니다"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문화기획을 발굴함
 - . 2022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시작 총 9명 활동가 지원
 - . 2023년 전남 문화예술진흥기금 400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20명의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지원



전남 순천시 외서면 한진희 활동가의 "농촌 쓰레기, 예술이 되다! <출세한 쓰레기들> Vol.2" 사례

- . 농촌 쓰레기를 옷으로 만들어 입거나 쓰레기 가운데에 누워있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인식 전환
- . 비단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들도 농촌 마을 쓰레기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음

○ 교훈과 시사점 : 사회적 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함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예술가들이 사회문제에 관심과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이 파트너로서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함
- 사회문제 해결형 창작활동의 주제설정, 진행 과정에서의 실패와 사업 변경, 보조금 사용 제한 항목 등이 기존 창작지원제도의 구조 안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해결하고자 한 문제 :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교육복지 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현저히 낮으며, 주변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힘든 삶을 살아감
- 또한 그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행복감이 결핍되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성과를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기

- 학교 밖(위기) 청소년 및 그 가족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과 협력하여 가족단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진행함
- 참여자들의 관계 및 자존감 회복, 정서적 치유, 사회적 역할인지 효과를 확인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46명	70명	360명
만족도	88.3점	91.78점	조사 미완료

○ 교훈과 시사점 : 문화예술의 가치발현 증거는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는 것

- 문화예술 '가치'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일회성 연구가 아닌 추적조사 또는 종단연구 등을 통한 장기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문화예술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과성 연구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찾고자 했으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9)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전부여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고려한 지역별 사업설계에 한계가 있음.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함.



2023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운영

(출처: 충남문화관광재단)

3.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 필요성과 과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은 <**①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활동영역 확대 기회로 활용**>과 <**②오래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이미 회자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이라는 말로써 주로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영역 중 <**②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몇몇 사례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됨. 하지만, <**①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③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어야 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사정상 다루지 못했지만, **①영역의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과 **③영역의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은 기술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이 긴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임.
- 지역문화재단들은 사회문제 해결 대응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보고서는 공동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 ②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 ③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 ④다양한 영역과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 ⑤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를 제안하였음.
- 전국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들의 연합체인 한광연은 <**①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②협력과 지원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함.

지역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으로 전환		
사회문제해결 시책확대 필요성	현실적 한계 극복 전략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지역문화재단 지원 역할
<p>①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활동영역 확대 기회로 활용</p> <p>②오래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p>	<p>①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p> <p>②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p> <p>③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p> <p>④다양한 영역으로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p> <p>⑤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p>	<p>①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p> <p>②사회적 가치 읽어주기</p> <p>③공진화 및 사례 확산</p> <p>④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p> <p>⑤자원 유치의 가교 역할</p> <p>⑥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p>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http://nafac.or.kr/>\)에서](http://nafac.or.kr/)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